

이번주 신간은… 〈그대는 꽃입니다〉 찬콩 스님 지음/효석 스님 옮김/사유수 펴냄/1만 6천원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이자 인류의 스승인 틱낫한 스님과 함께 30년 이상 수행하며 스님을 도와 프랑스와 태국, 미국, 독일 등에 플럼빌리지를 건립하고 가꾸어온 비구니 찬콩(CHAN KHONG) 스님이 한국에서 처음 책을 출간하였다. 〈그대는 꽃입니다〉는 찬콩스님의 저서 〈Beginning anew〉를 번역한 책으로, 플럼빌리지서 매주 행해지는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0 ~ 8/16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월리엄 하트	김영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바른 믿음의 불교	성엄선사	탐구사
4	그대는 꽃입니다	찬콩스님/효석스님	사유수	9	열반경 역해 (전3권)	이상규	해조음
5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스님의 남자친구	일광스님	불교신문사

기원전 6세기 인도사상계 우위를 불교가 차지한 이유는?



불교의 탄생

미야모토 케이이치 지음/한상희 옮김

불광 펴냄/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경제적 후원 바탕으로 발전한 불교

기원전 6세기경, 인도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특히 갠지스 강 중류 지역의 변화는 기존 질서를 흔들 만큼 획기적이었다. 수확량이 불안정한 밀을 재배하던 다른 지역과 달리 수확량이 안정적인 쌀을 재배한 이 지역에서는 잉여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수공업이 번성하면서 상업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 국가가 차례로 출현한다. 출신 계급보다는 능력을 중요시 여겼을 이 지역서 계급을 중시하는 전통 종교 베다에 반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 바라문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베다 전통에 반대하는 자유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상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교단을 형성한다. 불교 역시 이 시기 베다에 반발해 생겨난 수많은 사상 중의 하나였다. 불교도 왕과 귀족, 대부호의 경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교단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인도 사상계의 우위를 점했다. 그렇다면 당시의 수많은 사상 가운데 유독 불교가 오랜 기간 인도 사상계의 우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불교가 홀로 고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상과의 융합과 대립을 통해 장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붓다가 실용주의자이면서 원칙을 고집한 인물이어서다.

실용주의자 붓다가 수용한 것과 아닌 것

불교 발생 당시에는 없었으나 붓다가 받아들인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이나교의 관습서 유래한 안거이다. 출가자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 교단의 기본 원칙이나 우기에 일정한 곳에 머무는 안거가 정착되었다.

살생을 꺼리는 자이나교서 유래된 관습이지만 우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땅 위로 올라온 개미를 비롯한 작은 생명을 죽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불교 역시 살생을 금하고 있었던데다 우기에 외출할 경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채택된 이 관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붓다가 자이나교의 불살생 원칙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자이나교의 재가신자들은 땅속에 사는 미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정도로 불살생을 '엄격히' 지켰다. 자이나교의 원칙서 육류의 섭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탁발을 통해 재가신자에게 받은 고기 요리라면 먹어도 된다고 허용했다. 재가신자는 출가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공덕을 쌓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처럼 붓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실용적이라면 기존의 관습을 다소 어기더라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보였다. 당시 발생했던 사상 및 교단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이유로 기원후 1000년경 인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상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초기불교 문헌 중심 서술한 최초기 불교

대부분 개론서가 대승불교 문헌을 포함해 서술한 것과 다르게 이 책에서는 오직 초기불교의 문헌을 중심으로 이후의 기록,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대승불교의 사상이나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구분해서 서술을 이어나간다.

붓다 입멸 후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해설이 덧붙이면서 붓다의 가르침은 내용이 장황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승불교 역시 현학적 성격이 강한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 성립됐으므로 대승불교의 기록이 조금의 변형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 성립 이전부터 붓다 입멸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이 책의 성격상 대승불교 문헌을 비롯한 후대의 기록은 자료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붓다 입멸 이후 첨가된 가르침이나 변형이 적은 초기불교의 문헌을 바탕으로 붓다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서술한다.

그러다 보니 대승불교에 익숙한 독자라면 낯선 내용을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붓다를 칭하는 명칭 가운데 '따타가따'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중생 구제를 위해) 이와 같이 온 분'이라는 뜻의 '여래(如來)'라는 번역어로 알려졌지만, 실은 '그와 같이 (피안으로) 건너간 분'이라는 뜻의 '여거(如去)'로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세상의 무상함이나 찰나멸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은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은 그리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므로 수행에 몰두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붓다가 말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다.

비교와 대조 통해 선명한 최초기 불교

저자는 이러한 비교와 대조 및 서술을 통해 붓다 당시에 가장 가까운 최초기 불교의 모습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낸다. 불교 이외의 사상계서 붓다가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해 불교 초기의 발전상을 그리면서 독자는 붓다 당시 인도의 사상과 불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더불어 다른 관점의 맥락으로 불교를 바라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승불교의 그것과 비교하는 대목에서는 붓다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이후 세대를 통해 첨가된 내용을 구분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이 알던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적 부분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장보살 따라 새 수행의 길 들어선 수행자 고백서



내 생을 찾아서

보영 스님 편저/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5천원

수행 전환점이 된 법장보살과의 만남

젊은 날 인생의 전환점에서 출가의 길을 택했다. 승단의 교육을 받고 매일 예불과 수행을 반복했다.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엎드려 예불하는 것이 참된 승려의 자세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자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법장(法藏)보살을 만났다. 그 분의 수행과 고뇌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진정한 수행사문의 모습을 몸소 시현해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염불의 세계였다. 법장보살과의 만남은 수행에 크나큰 전환점이 됐다.

저자 보영 스님을 법장보살의 세계로 이끈 이는 스승 다카하라(高原)였다. 그는 진정한 정토신앙인으로서 곧은 가르침을 전해 지금의 저자로 설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35년 전 일본 승려학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던 당시 읽던 〈혼의 궤적〉(요네자와 히데오)을 참고삼아 국내 불자들이 이해기 쉽게 집필해 엮었다.

법장보살,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다

제 1장(정토불교의 탄생)은 법장보살의 이해를 위한 안내의 장이다. 법장보살은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전신으로 등장한다. 이 세상에 나타나서 53분의 부처님에게 차례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자재왕 부처님을 만난다. 법장보살은 세자재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본원을 이야기 하면서 이 본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법장보살은 스스로 5겁 동안 본원 성취를 위한 수행에 매진하여 마침내 불국토가 완성되고 아미타불이 되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로, 지금도 그곳에 상주하며 설법을 하는 부처님이다.

제 2장(극락정토의 장엄)은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詩)로 시작된다. "누군가가 갑자기 저녁식사 자리에서 일어서 박차고 나간다.

그러고는 쉬지 않고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한없이 걸어간다.

동방(東方)의 어떤 작은 시골마을에 그가 가고자 하는 안식처가 있는 것이다. (하략)"

일상성에 안주하지 못하고 항상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매몰된 인간의 숙명을 노래한 시다. 저자는 일가의 단란하고 즐거운 저녁 자리를 돌연히 박차고 나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가출과 출가의 의미를 되새긴다. 석가모니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수행자가 세속적인 행복을 뒤로하고 집을 떠났다. 그 수행자들은 법장보살처럼 세상을 뒤로한 채 고행림으로 들어가 생사가 보장되지 않은 고행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그 도정에서 자신의 구제는 물론 일체 중생의 제도에까지 마음을 두었다. 그것은 바로 보리심(菩提心)이었다.

〈탄이초(歎異抄)〉 인용하며 '숙업(宿業)의 염불' 설명

제 3장(염불의 전등)에서는 신란(親鸞, 1173~1263)대사의 가르침을 기록한 오래된 일본 불교 책 〈탄이초〉를 인용해 숙업(宿業)의 염불을 설명해나간다. 저자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타력 염불을 만나게 되었다. 그 감회를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그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불가사의하게도 나는 번뇌에서 해방이 성취되고 자유독립이 달성되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앞길에 찬란한 광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법장보살이 성취하신 비원의 가피가 십겁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나에게 사실이 되어 부처님의 숨결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염불과 주문(呪文)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염불을 무자각적으로 무작정 외우는 주문(呪文)과 같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사들의 사유에 의해 진정한 염불로서의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그 염불은 교주인 석가모니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며, 그렇기에 불교의 생명으로 자각된 것이기도 하다. 주문과 염불은 분명 다르다. 주문의 염불에는 힘이 없다. 자각의 염불을 하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어리석은 나, 둔감했던 나가 움직인다. 자각의 염불만이 진실된 길을 걷는 힘을 갖게 해준다. 염불자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과 고통에서 탈각하려고 할 때 선지식과 만남을 통해 가르침에 대한 진의를 접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염불이 진정한 신심으로서의 자각으로 바뀌게 된다.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유전해 온 염불 전통은 인도의 용수(龍樹)보살과 천친(天親)보살 그리고 중국의 담란(曇鸞)대사, 도작(道綽)대사, 선도(善導)대사로 이어졌다. 또한 한반도에서도 통일신라의 원효(元曉)대사, 의상(義湘)대사(625~702), 경흥(憬興)대사 등을 거쳐 지금의 저자에게까지 염불의 전통이 전승(傳承)됐다. 저자는 이는 오로지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5겁 사유의 비원(悲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